

- 1 在日僑胞의救靈
- 2 祖国統一의實現
- 3 韓・日兩國의和解

民族解放20週年에際 하여

殘留少數民의使命的인
活動에比大한成果를期함

總會長 丁 仁 壽 牧師

지금 20세미만의 사람들은 우리민족의 8.15때의 감격과 회회를 체험으로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민족의 8.15이전에 당한노예적 구속 밑에서 부자유로운 생활을 했었다는 사실은 한개 옛 이야기같이 들었을뿐이리라.

부모형제들은 너무도 부끄러움을 당한 일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랑스런 이야기만 남겨주는 민족 체첩 같지 않은 일본제국주의시대의 고통과 설움과 쓰라렸던이야기를 남기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는 복수할 의도에서 과거를 기억하려고는하지 않으나 남의 지배 밑에 다 시들지않도록 살길을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생각한다

解放後의 驚意의發展

無에서 二十年間걸었다

우리민족의 해방은 노예속의 소나 말이나 개 도야지 같았던 과거의 암흑에서 해방의 종소리와 아울러 인간성을 도로 찾게된 것이다.

우리가 어제 그날의 즐거움을 잊을수 있으랴! 해방후 우리민족은 각계 각방에서 완전한 자유와 보다 나은 행복을 이룩하려고 온갖 활동을 했었다.

우리 기독교회는 민족적

종교적 개인적으로 억울한 압박을 받고 예배당 조차 불타고 해산당하고 혹은일본교단에 합동을 당했었기에 우리의 것으로 남은것은 별로 없었다.

그것이 해방후 해방된 민족교회를 형성하게되었을 때엔 교역자라곤 두세 사람밖에 없었고. 집회장소로는 임시 장소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오늘날의 우리 총회에는 40여개소에 크고 작은 독립회당을가지게 되었고. 30여명의 교역자와 30여명의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3000여 신도의 집단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교포들의 그 어느 집단 보다 못하지 않은 내용이 있음을 서슴지 않고 말할수 있다

청년회의 활동을 비롯한 부인회, 장로회, 주일학교활동은 강력히 활동해 왔다 이것을 제어할 세력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2000년간의 교회사에서 확신을 갖고 말한다.

愛國・愛族活動에全力量

여기에敎會 가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일에 도취하거나 만족해 하거나 낙관하고 안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해방과 같이 걸어온 재일대한국교회총회 20주년을맞이하는 이때에 전체 회원들의 새로운 감격과

예수전 화보 (53)

우리나라 사람들중엔 주일을공일이 라고 부르는 이들이 가끔 있다. 그들은 일하지않는 날이란 뜻에서 빈날이란 글자음일 것이다 다시 생각되는 것은 수고함이없이 얻은 것을 공자라는관념에도 통할것 같다

이날이 일요일인데 시작은 예수께서 무덤을 헤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난 날을 기념한데서 부터이다.

주인공은 주시 ... 예수님의 묻혔던 무덤에가서



부활하신 사실을 보았으나 거기 대한 예언서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다

교회당에 가거나 성경을 읽 ... 주의할 날이다.

환회 속에서 다음의 몇가지에 전력할 것을 결심한다

(一) 우리는 육십만 동포전체를 우리의 선교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전개할것이다 여기에는 사상의경계선을 선입관으로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남북통일의 거대한 사업을, 이 염원속에서 달성하도록 노력할것이다.

(二) 부인전도회의 강화에 주력을 기우릴 것을 결심한다 우리의 민도 교양과 주부들의 생활개선개혁이없는 이역에서의 민족문화가 호평받기도 어렵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사람된 부어들새롭고 굳은 결심과 행동화에 크게 기대하고 활동을 전개할것이다.

(三) 세계로는 기독교교육활동에 지도력을 집중발휘하려고 한다. 신학적인 견지에서 의견을 달리하는바 있으나 예배의 설교를 비롯한 장년, 유년 주일학교 삼일, 오일집회 온갖 수양회 연수회등 교회적인 집회에서 유치원, 보육원 야간학교 일반동포학교등의 교육기관에 까지 기독교적 교육의 참됨을 이

해시키며 침투시켜 진위를 밝히려한다.

(四) 네번째는 교회청년들을 중심한 청년운동에 전력량을 집중할 것이다. 그들은 민족과 국가의 기둥인 동시에 세계를 좌우할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그들이 청소년기를 전전히 자라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기독교 윤리에서 육성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남은 세대의 사고방식에 예속됨이 없이 인류의 평등과 평화자유 건설에 힘있는 일군들이되도록 지도하려는 결심을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이 민족과 교회에 공헌될때 일본과의 관계도 건전히 세워져 갈것이라고 믿어져 해방 20주년에 제하여 결의를 표명하는 바이다.

文書伝道主日

9월 둘째주일은 문서전도주일입니다. 흠어져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문서로 방문전도하는 사업을 강력히 전개합시다. 물심양면으로 협력합시다.
총회 문서전도 위원회

4.6판
156면

성서와 한국 근대문화

값 450원

본서는 한국어 성서 완역 50주년 기념 논문집이다. 성경이 한국현대문화에 미친영향이 어떠했던가? 이 귀중한 문헌을 살펴보고 우리는 각성하여 뒤떨어지지 않도록 힘쓰자!

- <논문내용> ① 성서가 국어에 미친 영향 김 윤경.
 ② 성서가 한국 신문에 미친 영향 최 준.
 ③ 상서가 한국 현대소설에 미친 영향 김 우규.

大韓聖書公會

서울 중로 2가 92.진체구좌 서울 446

世紀的不安에 對處하는 基督敎會 (前承)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世界長老敎會連盟總幹事

京都에서 (말셀 푸라드 반드 博士)

죽음이란 신비성을 감춘 것으로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본문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와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확신이 적극화할때 전투하는 교회이기도 했었다 그것은 결코 초대교회의 신념일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의 것이기도 하다 중세기 그리스도교회의 개혁운동을 전개한 사람들도, 이 신앙에서 활동했었다. 이 내용을 다시 구분하여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다.

(1) 그리스도인은 자기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의하여 산다는 것이다. 인간들은 사는것은 제멋대로할수 있는듯이 보기도하지만 주님과 같이 살아야할것이라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일반 사회인들의 가정관과 다른 점이다.

(3) 그리스도인의 사회활동도 주의것으로 말아 처리하는 것이다. 노동자나 농민도 그런것이 라고본다.

(4) 그리스도인은 인종문제에 있어서도 주의것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5) 우리는 오늘의 세계평화 문제에 있어서도 그해결에는 같은 입장에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 《자기, 가정, 사회, 국제, 평화》에전부 주의 것이라 는 관점에서 실천하고 실현 해결하려고 한다.

사나 죽이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는 이 사실을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 수단보다 위대한 신앙을 좀더 진실하게 자기것으로 할 필요가있다. 소란 복잡한 사회에 처해 사는 현대 기독교자는 이 신앙에 더욱 깊어지야 할것이다

지금부터 16년전일인데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정부의 탄압을 받게되었을때 신앙동지들은 우리는 주의것이라는 신앙에서 박해를 참고 견디었다는 사실은 감명 깊은 일이다.

최근 폴란드 기독교청년들도 우리는 주의것이 라는 신앙간증을 하여 서구라와 신도들에게 새로운 용기를준 일이 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 내일 어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것이라는 신앙에 굳게 서도록 하자"

<돼지 같은 놈>

(비 유)

우리 속설에 식충《食虫》이라는 말이 있다. 아마 먹기만 잘 하는 사람을 비웃는 말인줄 안다. 그와 비슷한 말은 도야지 같다는 말일 것이다. 사람같다 는 말은 사람외의 어느 무엇을 보고 영리하다는 표현에 대응할때의 용어라면 도야지 같다는 말은 어떤종류의 인간에게 던진 말인상 싶다.

植村正久회상기를 읽으면 그가 大阪 어느 부자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 당신은 도야지 같은 자이라고 그 초대자를 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늘날우리의 생활을 도야지 같다고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진주를 받지 못할 존재가 되고 말것같다. 외나 하면 예수께서 진주를 도야지에게 던져 주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먹고 자고 깨면 또 먹을 것만 찾는 도야지 같은 생활을 청산하고. 이 생명이 유지되는 날까지 보람 있는 생애를 하도록하자

—(나)—



主体性確立에 研究가 必要

—高校生 캠프를 마치고—

(広島유~스 호스텔 에서)

교회청년회 고등부집회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広島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다. 환경도 좋고 설비도좋았다. 참가자는 남녀 약60명이었고 강사와 운영위원 방청자들이 15명정도였었다.

고등학교 캠프로는 주제와 강의 내용이 좀 어려웠다. 물론 그리스인의 생활에 있어서 교회관을 바로 가져야 할것이 겠으나 고등학교 생도들에 예정론에 입각한

교회의 기초, 교회의 본질이란 소재등은 어려웠다. 반성회를 통하여 제기된것은교회란 무엇이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확실히 않았다는 점이 었고 습관적으로 회당에 출석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지도자들의 면밀하고 정력적인 연구 검토가 요구되는 것들이 많았다.

중교서적 조유의

☆ 月賦 판매 ☆

聖書 新約全書 黒崎幸吉 著 郭哲榮 牧師 訳

<全10卷中現在의 5卷> 定価 1.850원을 1.500원으로 3개월 分納

철학적기독교 변증론 뽕세 빠스탈 지 역 李 恒 역

정가 450원을 400원으로 2개월분납

백신약전서 張時華 牧師 역음

정가 2.000원 4개월 分納

※주문을 반드시 옆서로하시면 2日以内に 배 본또는발송함

서울特別市永登浦区永登浦洞 3가26

三 一 書 林

振替 서울 1118番

敎界 唯一의 月刊誌

基督敎思想

基督敎思想은 韓國敎會의 革新과發展을 爲하여 理論과 實際問題를 淸급한다

값 50 원

半年定期購読料 260 원

1年定期購読料 500 원

세계적 가정 예배서

다락방

격월간 값 1권 20 원

1년 100 원

20 원 이상 1할인

100 원 " 2할인

法財人團 大韓基督敎書會 서울特別市鐘路區鐘路二街九一

어린이 월간 잡지

새 벗

13년의 역사!

충실한 내용!

값 한권 = 30 원

반년 = 160 원

1년 = 300 원

KOREA CALLING

韓國의 선교사업을 영문으로 엮은 유일한 월간지

1부 30 원

1년분 255 원

キリストに在って生きるもの

— 社会に対する責任 —

聖句 ヨハネ福音書3・16

1. この世に住んでも、この世のものでない。

キリスト者は、この世に住んではいるが、実はこの世に属したものではない。我らの国籍は天国にあると、パウロが言ったのも意味深長である。(ピリピ3・20) キリスト教は、この世間で言う宗教とも違う。だから洗礼者ヨハネは荒野で、ユダヤ教の伝統をもって統洗礼を受けに来た時に、アブラハムの子孫だといって血統や伝を条件に救はれるとは思わないで、罪を悔い改めるやうにせまった。(マタイ3・9～12) パウロもこの世の妥協せずに心を入れかえて新にするように教えた。(ロマ12・1～2) 主イエスがガリラヤ伝道に於いて罪を悔い改めて福音を信ぜよと絶叫した。(マルコ1・15) これはこの世の者として生活して来たことからの清算を意味している。今迄の自己を否定して、新しい内なる聖霊に押し出されて生きるものである。(マタイ16・24～25) この世に対しては絶縁状をつきつけてキリストの生命を生きる者である。(ガラチヤ2・20)

2. 社会に生きるもの

神様は人間を男女二人をおつくりになった。(創1・27) そこには社会が形成されている。神と二人の人はエデンで、神の戒に従順であった時にはなんの不安もない楽園であった。(創2・24～25) しかし神の戒めを破って、楽園を追放されてから人間は苦悩の連続であった。それは罪から出たものである。(創3・19) 神はこのような罪ある人間を愛した。(ヨハネ3・16) 私たちはややもするとこの世を神から見離された所と思いがちである。神はこの世を愛したが故にその独子を十字架につけてまで私達を救う計画をなさった(マルコ15・37～39) 神の愛しているこの世に私達も、自己を捧げてまでこの世を愛する責任がある(条1ヨハネ3・16) よきサマリア人の例に出て来るやうに私達は隣人を愛することが、当然なすべき義務である。(ルカ10・30～37) その隣人とは私の助けを必要とする人である。この隣人愛は人道主義からは絶対に出て来ない。それは神を愛することから出て来る。(ルカ10・27)

3. 社会に生きる責任

キリストにあるとは、神との霊的な交わりをもつことである。(ヨハネ1・51) しづかに神に祈る姿が常になければならない。(マタイ6・6) 人間は社会への責任を感じてもなかなかそれをやりとげる力がない。この力を神より与えられる。(ヨハネ16・33) キリ

スト教の歴史始まって以来つねに社会への感心は高まっていた。洗礼者ヨハネが荒野で福音を宣べ伝えた事や(マルコ1・1～8) 主イエスがガリラヤの村々を尋ねて神の国の到来を告げたこと(ルカ4・31) 山上の変望の時にも山へたてこもろうとするペテロの提案を受け入れないで、下山して悩める少年を治したのも、社会への責任を示した一つの例である。(マルコ9・1～29) 宗教改革者達にしても、信仰を山奥にとじ込めたのではなく、社会へ押し出したのである。それは福音の本質が、社会を離れた個人へのものではないことから来る使命によるのである。(行2・43～46)

4. 人間回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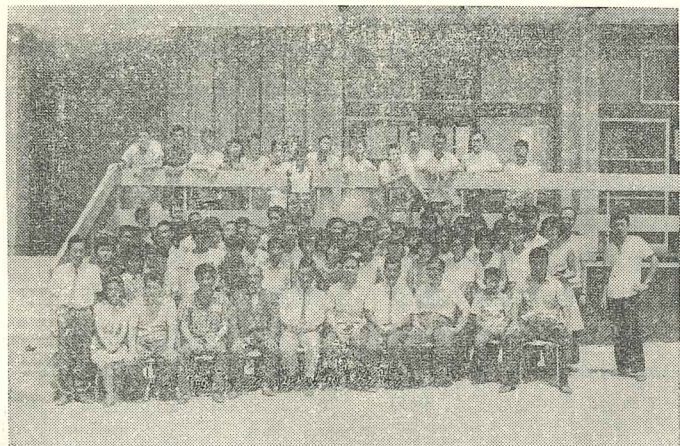
今日は誰でも福祉国家を造ることが最上の幸福であるように思うそれは物質面での充実した生活を意味する。人間は体を有しているだけでなく、霊的生活をしていることを(ヨハネ4・24) 忘れてい

るからである。国家がする福祉政策は人間性をさえ喪失していることが多い。亦その時の政府を構成している政党に利用され勝ちである。福祉施設は公立なものよりも私立の血のかような連がりをもつ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もともと人間は神によって造られたものであるが、罪によって神から離れてしまったものだから、此の神との関係を回復するのが第一条件である。(行20・27) 政治、経済、教育等の社会全般の事柄は、人間の意志によって運営されるから多くの欠陥が出て来る。これを神との関連性においてなされるべきである。これをするのはキリストにあって生きる者においては他にしない。私達はそのような使命によって生かされている者である。(マタイ28・9～10、行8・1～)

主題講師 金元治
(西成教会牧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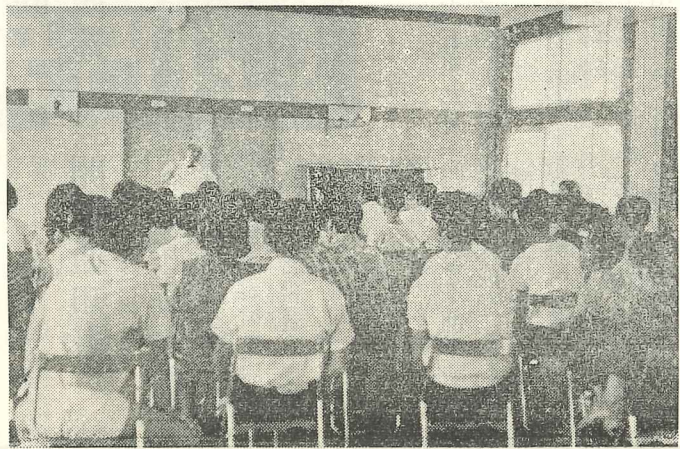
各修養会報告

高等部修養会



高等部修養会は8月3日～6日(三晩四日)広島ユースホステルにて参加者75名(男子43名 女子23名 指導者9名)で開かれた。例年なれば、受付と同時に開会礼拝の準備に多忙をきわめるのであ

るが、夜の開会礼拝がなされるまでに、各学年別のオリエンテーションなどが開かれ、それぞれ、修養会の準備がなされた。今年の特徴は毎年青年部修養会に気かねの様なものがあつたが、全く場所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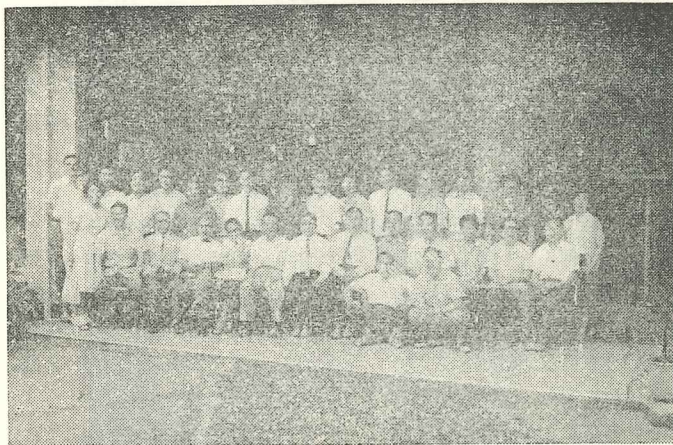


同じくしないので、独自の特色を示すことが出来たことと、広島教会の地もとであったので、教会よりスイカ・モモ・マッカなど一日に一回献品があつたこと。そして市内財界(幹事梁在植氏)による市内見学の為のバス等で、協力を得たことである。

各学年の講師による解題は実に

各学年にもっともふさわしい言葉と内容及び準備された文書によって説明され、主題「教会に生きる」をより具体化して行った。特に「特別講演 田永福牧師の話」に多くのものが涙しながら聞き入り、牧師の半生を主に感謝するのであ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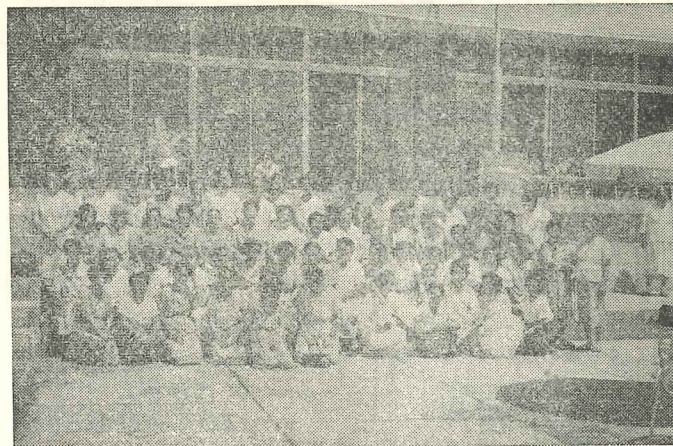
教職者修養会



教職者修養会が今年は、7月20日～22日、三重県四日市町山の湯で開かれた。参加者三十三名、在日大韓基督教の伝道をはばむものと言う主題のもと、教育・社会・伝道面から検討が加えられ、三日

間それぞれ教会、地方会、総会の責任あるものとして伝道への反省と責任を新しくしたものであり、特に韓国神学校の李如真牧師をゲストとして迎え多くの教示を得たことは感謝である。

婦人修養会



婦人修養会は7月27～29日、紀州椿で64名の参加者で「교회와 가정은 우리들」と言う主題のもと開かれた。子供と婦人は同質なのか、よく食べ、よく遊び、そしてよ

く学ぶと言うものを実際にやった様な修養会であり、やあ、もう終わりですか？と帰りの汽車の中で確認するザマであつた。

青年部会修養会



青年部修養会は8月10日～13日、信州野尻にて主牧 貴義生牧師のもと、開かれた。このたびの会場は、実に修養会の為に準備

されたものの如く、静かにして、学び祈るにもつとも良き処であつた。参加者 130名

汝われを愛するか

ヨハネ伝 21・15～22

播 磨 醇

漁師生れの気性の激しいペテロ
しばしば行過ぎて、主イエスから
叱られ、たしなめられたのである
が、何んと云っても、一番信頼さ
れ、期待されたのはペテロであっ
た。

彼もまた、自分よりも年若いイ
エスを愛し、自分の命をかけても
主を守り抜こうと考えていた。

最後の夜も、主の十字架が迫り
自分達を取巻く大きな不安を感じ
たペテロは、何んとしても、自分
がイエスを励まし、弟子たちを力
づけてやらねばならぬと考えた。

そういう正直な気持が「主よ、
わたしは獄にでも、また死に至る
までも、あなたとご一緒に行く覚
悟です」(ルカ22・33)と云う言
葉となって彼の口から出たのであ
る。

ところが、その舌の乾かない中
に身の危険を感じた弟子たちは、
そこに主イエスをただひとり残し
て、一目散に逃げ去ったのである

それでも、さすがペテロ、途中
で思い直し、夜陰に乗じて、再び
イエスのもとに帰って来たのであ
るが、そこで激しく嘲られ、責め
られている主の姿をみて、折角の
彼の決意も崩れ、「その人のこと
は何も知らない」と三度まで群衆
の前で激しく誓ったのである。

そして遂に、これ程までに自分
を愛してくれた主、命を賭けても
お守りすると誓ったイエスを見棄
て、呪うまでになってしまったの
である。

全く、やり場のないみじめさ自
分に対する激しい怒りや嫌悪をつ
ぶさになめたペテロや弟子たちで
あったが、主イエスの死後、その
深い悲しみの中で、彼らは復活の
主に出合ったのである。

しかし、彼らの心はやはり驚き
と不安、喜びと悲しみの入り混っ

た複雑な気持ちでしかなかった。

このような毎日の生活にたまり
かねたペテロは、自ら「漁に出か
ける」と云い出し、他の弟子たち
と一緒に舟に乗り、沖に乗り出し
ていったのであるが、一匹の魚も
一個の魂も漁ることが出来ず、彼
らは以前よりもっと激しい自己
嫌悪と不安の中に陥込んでいった
のである。

その時、再び復活の主イエスが
ガリラヤ湖畔の弟子たちの中に顕
われ、「ヨハネの子シモンよ、あ
なたはこの人達が愛する以上に、
わたしを愛するか」(15節)と問
いかけられたのである。

それにしても、今更どうして、
主がそんなことを云われたのか、
もっと外に、ペテロを励まし、力
づけてやる術がなかったかと思わ
れる。

だが事実、激しい嫌悪と絶望の
中にある人間の心に通じるものは
愛だけであろう。そして、愛に呼
び醒まされた愛だけが、その人を
新しく生かして行くのである。

この場合でも、主イエスはペテ
ロや弟子たちの不信仰や弱さを責
められたのではなく、先づ「汝わ
れを愛するか」と云って、その愛
することを求められたのである。

ペテロはすぐに「主よ、そうで
すわしがあなたを愛することは
あなたがご存知です」(15節)と
ごく当然であるかのように答えた
のである。

私たちも「イエスを愛する」と
云いながら、それが口先だけの愛
であったり、教会生活の情性の中
で、いつの間にか身につけた習慣
的なものであったりすることが多
く、いつも、いつも自分中心な愛
しか捧げていないのではあるまい
か。

このペテロに対して、主イエス

は二度、三度「ヨハネの子シモン
よわたしを愛するか」(17節)と
問い直されたのである。

同じことを三度問われた時、ざ
しものペテロも、自分自身を深く
省みずにはいらなかったのではあ
る。

彼は「主を愛している」と告白
しながら、事実、主を愛し得な
かった自分、そして、いつまた、主
イエスを裏切るかも知れない自分
そういう時甲斐ない自分の姿が、
そこにむき出しにされて行くので
あった。

それにしても、ペテロの不信仰
彼の弱さや脆さ、それは、誰より
も信頼と期待をかけて来た主イエ
スにとっては、鞭打たれ、投獄さ
れるよりも辛いことであつたに違
いない。

八月・カレンダー

夏期の修養会も青年部修養会を
最後に全部終った。毎年夏期にな
ると、七月八月中6週間ほどが修
養会のラッシュという事になり
全国的なもので地方会的なもの、
そして各教会主催のものと色々な
修養会が目まぐるしく言うことに
なり、牧師達は、修養会の為に、
東西南南に走り回り、終る頃には
フウフウと言う。つかれつつも楽
しいことであるが、このあたりで
教会主催の行事にもっと力を入れ
て見る必要がある様に思得る。

教職者修養会で「伝道をはばむ
もの」と言うテーマで、協議なさ
れたが、要はもう一度教会に帰る
ことである。色々な意味で前線が
のびきり、教会の青年会の働き手
なのか全国教会青年協議会のメン
バーで教会の青年会などは、俺の

しかも、このペテロにあくまで
信頼と期待をかけ、どこまでも愛
して止まない主の愛を思う時に、
心の熱くなるのを覚えるのである
この主イエスの深い愛に迫られ
た時、シモン・ペテロは何もかも
投げ出し、そのありのままの姿で
もう一度「主を愛しています」と
云い切ったのである。

それはペテロだけのことではな
い。何度も主の心を痛め、裏切り
罪に罪を重ねてしか生きられない
私たちである。しかも、このあり
のままの自分の姿を知りながら、
なお信頼と期待をかけて、私たち
を愛して止まぬ主イエスである。

私たちは、このイエスから「汝
われを愛するか」の御ことばを、
今一度、はっきりと聞きながら、
畏れをもって心から「主を愛して
います」と云い切ってみる者にな
りたい。

また事実、貧しいながらも自分
の精一杯の愛を主に捧げる時、そ
こから、信仰の教会のあらゆる問
題の糸口が開け、また、そこから
新しい伝道の道が拓けて行くこと
を思うのである。

われも愛せん、愛する神を。

(日基教団 家族教会 牧師)

争中日本で日本人として学校教育
を受けたイヤな体験があるからな
のか? 国家々的なものに本能的
に反感を感じることを悲しく思う
しかし感情は感情として、地方会
主催で記念礼拝の行なはれること
はいいことだと思う。

あれから20年、十年一昔である
とすればすでに二昔の二十年であ
る。0才の幼児は、すでに20才の
成年に達した年月である。我が祖
国の20年の歩みに思いをとおめて
見たい。1945年8月15日、日本の
連合国に対する無条件降伏を日皇
裕仁の放送により知らせ、36年間
の日本による支配より解放された
ことを知り、その喜びは全土に津
波の様に伝へられて行き、数日は
それこそ祭りの様であったと言う
直にでも、国家の樹立そして民族
の独立と思うたのもつかの間、国
土は、南北に両断され、それのみ
か、同民族相争う姿を歴史に止め
かつ今日なほ明日のビジョンを定
めていないのである。私共韓国人
として深い反省を必要とする。20
年前の喜び方にも問題はあったで
あらうが、それはともかくとして
解放後20年という年月は一つの事
実として重く私共の上にのしかか
る。私共のせねばならぬことはあ
まりにも多い。福音新聞の主張で
ある三つの言をもう一度確認しな
がら、使命に生きるものでありた
い。

①在日僑胞の救済

②祖国統一の実現

③韓・日両国の和解

20年目の光復節を迎えるにあた
り、20年と言う事実を立、深い反
省と計画を持って21年目を生きよ
う。早急に歩みを早めよう この
記念日を無駄にしない為に。

(寿)



在日大韓基督教

教会 貴中

在日韓基閣地会発 第六九号

一九六五年八月五日

在日大韓基督教関西地方会

会長 丁 仁 寿

第十六回

関西地方会開催通知書

聖鴻恩中貴教会日益隆盛と心から平康を祈る。第十六回地方会を如左に開催し、祈禱を協力し、報告書を提出する。要望します。

記

一、時日 一九六五年九月十四日(火)午前十時定刻

一、場所 大阪教会 大阪市東成区大成通一ノ七三

一、総代 総会憲法 第四十条に依りて選定し

一、総代名 単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

一、総代 提出し、九月五日内各教会が地方会書